월간 계란 소식지

2022년 5월 제20호



사단법인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CONTENTS

2022년 5월 **통권20호**

권두언

03 (사)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

산란계 수급과 동향

04 4월 분석 및 5월 이슈점검

계란시장 전망

10 생산성을 낮추는 질병에 대한 대비와 함께 /
생산비 증가·소비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

계란 유통정보

12 4월 계란수급동향정보지







발행일 2022년 5월 10일
발행인 전만중 발행처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10 아이에스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 808호
전화 031-8027-6642
FAX 070-4335-5147
기획 · 편집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 · 전재할 수 없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HACCP 인증마크」 표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만중 협회장

우리 협회는 식약처가「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인증마크」표기를 허용함에 따라 회원사 및 관련업계 등에 선별포장업 HACCP 인증마크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계란 판매'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는 계속 유지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HACCP 관리기준을 명확히 준수한다면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도 계란 포장지에「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인증마크와 문구」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별도로 받고 있어 중복적인 업무 등으로 어려움과 비용 손실이 발생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기관이 달라 한해에도 정기 · 비정기 HACCP 점검을 몇 차례씩 받고 있어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은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요구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인증마크"표시를 허용 받음에 따라 신속히 회원사 및 관련업계 등에게 알리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도「식용란선별포장업자 HACCP 마크」허용을 전달하면서 혹시, 모를 문제발생 등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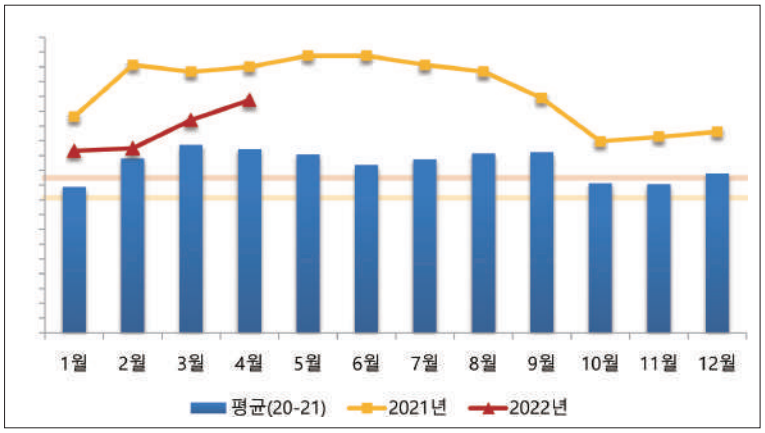
인증원에서는 ①수입된 계란을 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경우, ②동물복지 ·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아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 ③닭의 사육두수가 1만마리 이하인 영업자 등은"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계란산업의 발전과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의 계란관련 정책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더불어「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인증마크」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대한민국 언제 · 어디서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계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당분간 강보합세 유지 전망

난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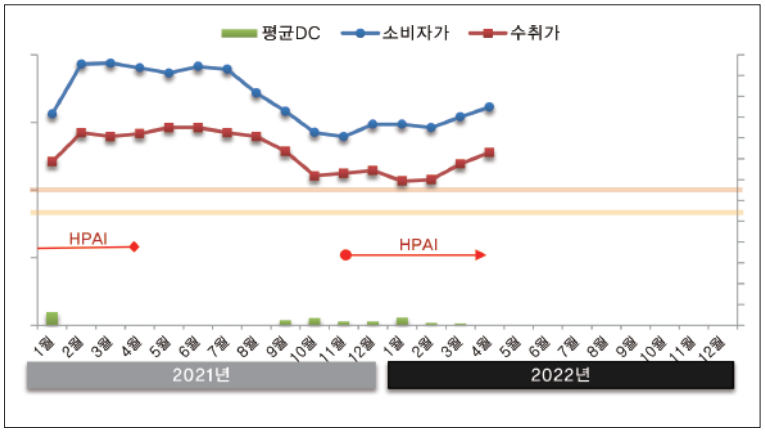
* 평균(20-21): 20년~21년의 난가 평균
*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수취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4월의 지속적으로 많은 노계 도태실적과 저병원성AI 등으로 인해 계란 수급이 부족하였음
- 5월의 산란계 사육수수는 4월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병원성AI/닭진드기/ 티푸스등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문제로 인해 수급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상대적으로 큰알에 대한 공급은 감소하고, 잔알은 여유 있을 것으로 예상

소매가격 동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특란' 소매가격의 평균
* 경향을 나타내는 자료이므로 실제 가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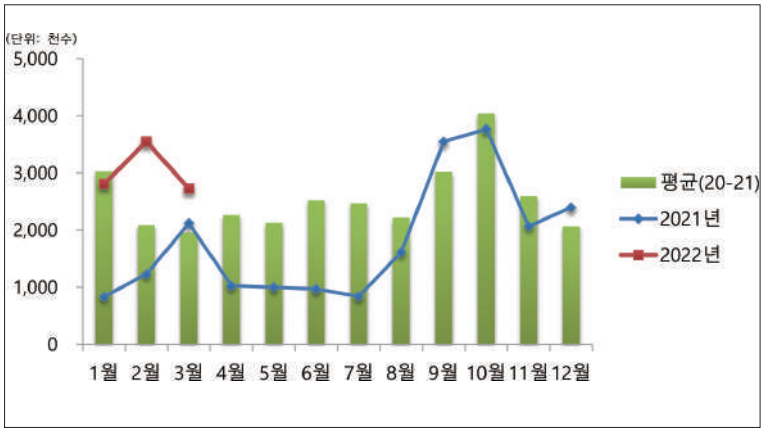


- 5월은 4월보다 수급상황이 원활해질 수 있으나 기온상승/질병 등의 상황이 가격동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과도한 수급문제가 없고 생산비 증가 등의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계획적인 생산을 위한 산란성계육 도태 진행

산란노계도축실적

* 확정실적(검역본부)
* 가통계 수치(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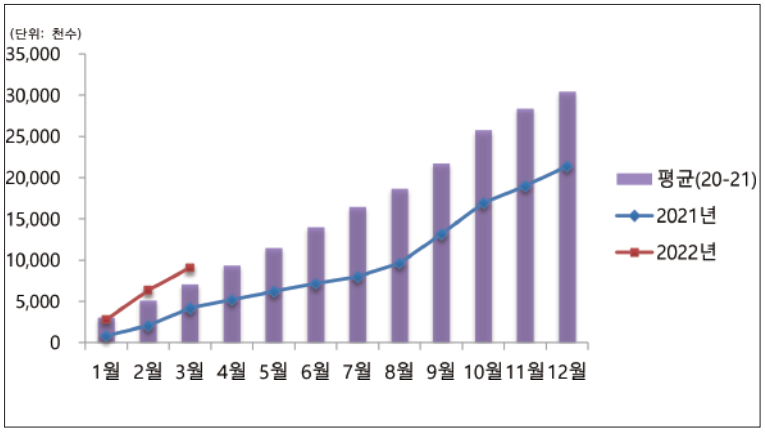


- 4월 도태실적(2,299천수)은 21년 동월대비 224.5%로 증가, 20-21년 동월평균대비 101.5% 수준으로 유사하였고, 3월 대비는 84.4%로 감소한 상황

- 5월의 도태예상은 4월과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산란노계도축 누적실적

* 확정실적(검역본부)
* 가통계 수치(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 1분기는 평균실적대비 높은 도태실적을 보였지만, 2분기는 1분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분기에도 신계군 교체로 인해 전년보다 높은 도태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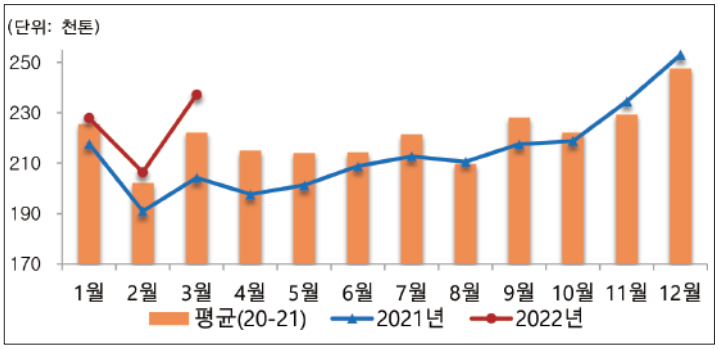
빠르면 5월부터 수급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사료생산실적

* 평균(19-20) : 19년~20년의 사료생산실적 평균(농식품부)
* 육추사료 : 육추사료에서 육용종계 실적 제외(농식품부)
* 어병사료 : 어린병아리 사료 실적(농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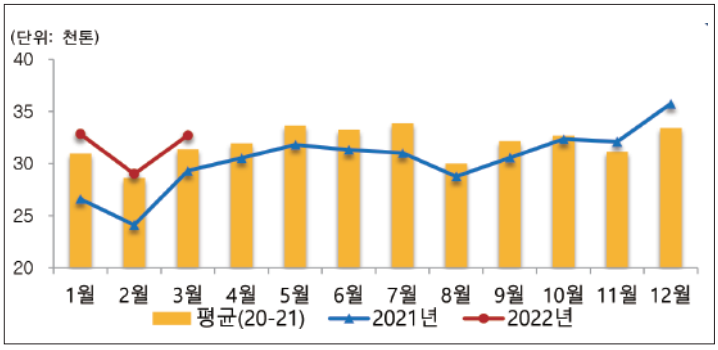
산란사료

- 3월 생산실적은 21년동월대비 116.2%로 증가, 20-21년동월평균대비 106.7%로 증가
- 3월 생산실적은 전월대비 115%로 증가하였음에도, 환우회복 또는 낮은 생산성의 노계군으로 인해 사료생산 증가에 비해 계란생산량 증가 폭이 높지 않아 수급에 문제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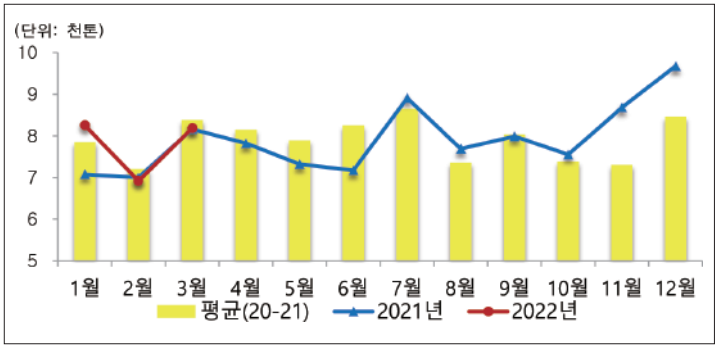
육추사료

- 3월 생산실적은 21년동월대비 111.7%로 증가, 20-21년동월평균대비 104.3%로 증가
- 3월 실적은 전월대비 112.8%로 증가, 3월 병아리 분양실적이 2월대비 17%증가한 것과 연관성이 있으며, 5월은 중추수급이 원활하겠으나 지역에 따라 소폭 부족할 가능성 있음



어병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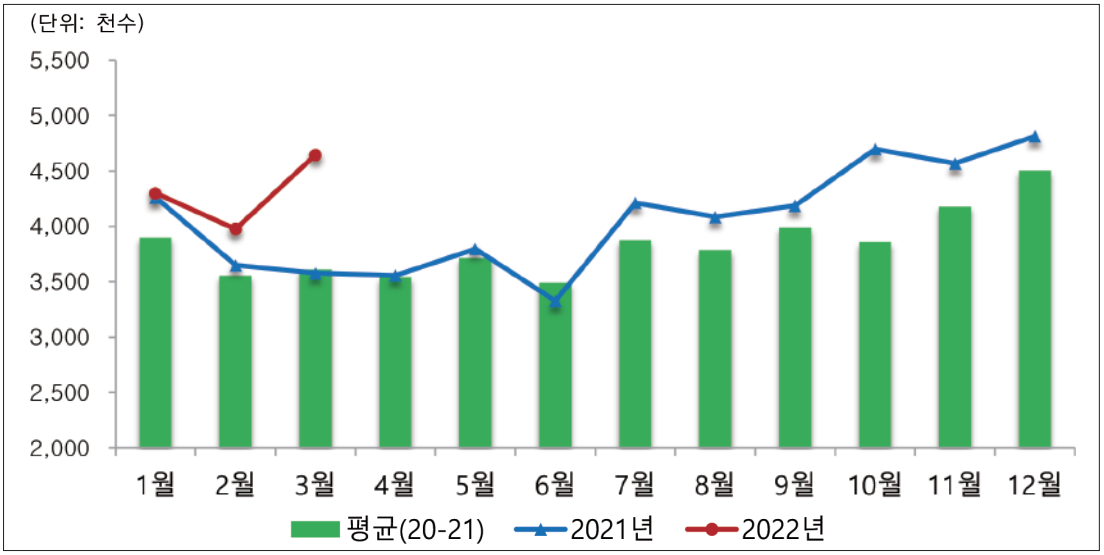
- 3월 생산실적은 21년동월대비 100.3%로 유사, 20-21년동월평균대비 97.7%로 감소
- 3월 실적은 전월대비 118.4%로 증가, 2분기 어병사료 생산실적은 1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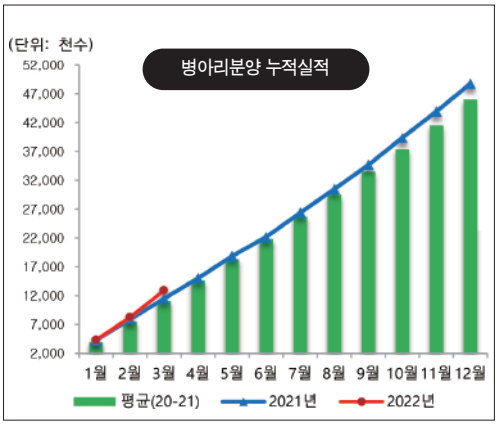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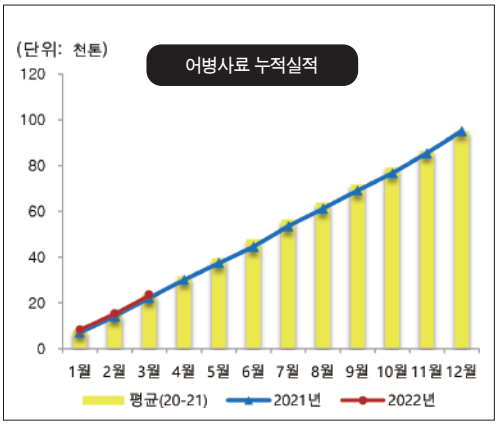
산란병아리 분양수수는 평년대비 약 10% 증가

병아리분양 실적

* 양계협회에서 발표한 월별 병아리분양 실적
* 평균(20-21) : 20년~21년의 병아리분양실적 평균







- 3월 병아리 분양실적(4,644천수)은 21년 동월 대비 129.8%로 증가, 20-21년 동월 평균 대비 128.6%로 증가한 상황으로 전월보다 116.8% 증가한 분양실적으로, 평균대비 높아 하반기 계란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1분기는 많은 신계군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신계군의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문제와 평년대비 높은 도태실적 등의 영향으로 계란수급이 다소 부족하였음
- 2분기는 1분기보다 사육수수가 증가할 것이나 생산성문제와 코로나방역정책으로 인한 소비변화의 동향에 따라 적정한 수준이거나 계란공급량이 소폭 높을 것으로 예상

산란계 관련 이슈



· **(통계청) 산란계 사육 동향** : 1분기 산란계 사육수수 7042만8천수로 전년보다 13.4% 증가
  - 6개월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3/1일 기준 5015만3000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400만 마리 이상 증가
  - 3개월 미만 마릿수도 1081만2000마리로 1년 전(887만3000마리)보다 증가

· **(식약처) 달걀 선별 · 포장 유통제도 확대** : '22.1.1일부터 업소용계란까지 식용란선별포장업 거쳐 유통(6/30까지 계도)

· **(농식품부)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엄격 조치** : 닭(종계·산란계 0.05㎡/육계 39kg),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여 관리 예정

· **(정책) 식용란수집판매업 : 자가품질검사(항생제, 농약) 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해야 함**(가축위생시험소 검사가능)

· **(정책) 식용란선별포장업** : '21.11.11일 부터 선별포장업자는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 수집판매업자는 보관 의무

5월(고온환절기) 집중 관리 사항

성적관리

- 일교차와 더위 스트레스로 오파란 증가, 산란율 하락 우려시기
- 산란율, 난중, 오파란 등 성적 모니터링 필요
- 섭취량 감소로 인한 체중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체중 측정필요
- 대체로 섭취량 115g이하, 또는 동절기 대비 10%이상의 섭취량감소 시, 산란성적이 문제되므로 섭취량 체크
- 섭취량이 105g이하로 감소하거나 난중이 누적 1g 이상 감소하면 사료의 영양수준(CP)을 높여서 급여
- 난중이 주간 0.4g이상 감소하면 섭취량 및 더위스트레스 점검

영양관리

- 일교차, 더위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영양제 지속 투여 권장
  - 미네랄, 전해질 포함 영양제 추천
- 지방간증 해소 및 예방을 위해 간기능개선제 권장
  - 카르니틴, 실리마린 성분 등이 포함된 간기능개선제 추천
- 수질이 나빠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수질검사 및 음수라인 관리
  - 음수라인 플러싱 및 음수라인 전용 제품으로 바이오필름 제거
- 심야점등을 하는 농장의 경우는 5월부터 심야점등 고려

환경관리

- 낮 동안 고온으로 인한 성적문제가 우려되는 시기
- 내부온도 23 ℃ 이상부터는 최소 1m/s이상의 유속형성
  - 27 ℃ 이상은 2.5m/s이상 유속 권장
  - 쿨링패드는 28℃ 또는 30℃ 이상에서 고려(단, 습도 80%이하)
- 후면 배기휀(47인치이상)의 유속이 6.5~7.0m/s 이상 관리 권장
- 내부온도 27~28 ℃ 이상은 터널환기 중심으로 설정 권장
- 5월의 호흡기성대장균증 폐사는 대체로 야간환기 부족으로 발생하므로 야간환기 증가 우선 조치
- 입기구(셔터,배플)의 개방상태 적절성 점검
  - 출입문열기 힘들면 입기량이 부족한 것이므로 입기량 증가 권장
- 비상발전기 작동여부 및 연료잔량 체크
- 5월은 자연일조를 고려하면 개방계사의 점등자극은 15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적절한 점등자극

질병관리

- 기온상승으로 인한 지방간증 및 지방간출혈증 우려 (특히 신계군)
- 티푸스 발생 농장은 티푸스 백신 접종
  - 하절기는 2개월마다 보강접종 권장
- 닭진드기 서식 농장은 매주 진드기모니터링 후 적절한 구제 필요
  - 1~2등급 수준에서 구제하여야 낮은 서식밀도 관리 가능
  - 친환경물질, 물리적구제방식(규조토 등) 권장
- 음수라인 온도 상승으로 장염 또는 소화기성대장균증 우려
  - 소독제 또는 음수관리제품으로 매주 관리 권장
- 고온기에도 저병원성AI, IB, 뉴모 등 호흡기 질병은 꾸준히 발생
  - 6주~8주간격으로 접종하는 경우 IB 생독백신 권장
  - 4주간격으로 접종하는 경우는 QX형 IB 생독백신과 호흡기형 IB 생독백신의 교대 접종 권장.

생산성을 낮추는 질병에 대한 대비와 함께
생산비 증가 · 소비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

수급 및 시장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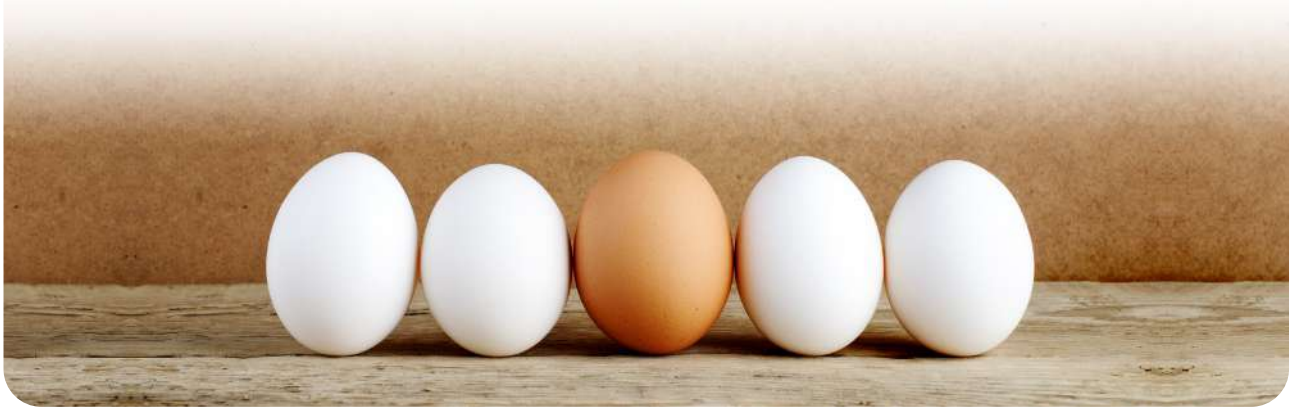
1분기 통계청의 보도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수수는 7,042만8천수로 전년보다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의 수급은 오히려 다소 부족한 듯하며 4월까지도 높은 난가를 형성하고 있다. 5월은 4월보다는 수익성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줄줄이 사료가격이 인상되어 생산비는 높아지고 코로나 방역정책의 변화로 계란 소비도 감소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백신이 아직 유통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저병원성 AI는 올 한해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저병원성 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사양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시기이다.

자료분석

3월 산란사료 생산실적은 237,236톤으로 21년 동월대비 116.2%로 증가하였고, 20~21년 평균대비 106.7%로 증가하였다. 3월의 높은 도태실적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115%의 수준으로 산란사료의 생산이 증가하였다. 신계군의 유입이 과도한 상황이라면 계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 환우회복으로 인한 섭취량 증가의 영향이라 산란사료 생산량에 비해 계란생산량은 적은 상황이었다.

3월 육추사료 생산실적은 32,720톤으로 21년 동월대비 111.7%로 증가하였고, 20~21년 평균대비 104.3%로 증가하였다. 전월대비 112.8%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3월의 초생추분양이 2월에 비해 17% 가량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5월의 중추공급은 적절한 수준이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소폭 부족한 경우도 발생되기도 하였다. 6월에는 5월보다 중추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스럽게도 높은 난가에도 불구하고 중추입식에 대한 수요가 과하지 않아 중추가격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3월 어린병아리사료 생산실적은 8,189톤으로 21년 동월대비 100.3%로 유사하며, 20~21년 평균대비 실적보





다 97.7%로 감소한 상황이다. 전월대비 118.4%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초생추의 분양이 2월보다 16.8% 증가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 3월까지 어린병아리 사료의 누적생산실적은 21년대비 105% 수준이며, 평년대비 115% 정도 높은 상황이다. 향후 큰 변화가 없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 계란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소비양상이 난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1분기 어병사료의 생산실적은 전년대비 105%로 증가하였고, 육추사료는 전년대비 118%로 증가, 산란사료 역시 110%로 증가하였다. 사육수수는 평년대비 5~10% 정도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4월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가 유지되고 저병원성AI 등 생산성 문제를 유발하는 질병 등의 영향으로 적정한 수급을 나타내고 있지만, 빠르면 5월부터 소비감소로 인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수급전망

기온이 상승하면서 더위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낮 동안 충분한 환기를 유지하고 음수관리와 생균제 첨가 등의 관리로 소화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닭 진드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발생과 2차적으로 가금티푸스가 발병하는 등의 문제 등에 대비하여 조기에 진드기를 방제하고 가금티푸스 백신접종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4월 1주차 계란수급동향정보지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유통가격 동향

(2022. 3. 30 ~ 4. 5)

구분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비자가격	산란계병아리 월별 평균가격	산란성계육 주별 평균가격
	특란(원/30개)	특란(원/30개)	특란(원/30개)		
4/5(화)	4,990 ▲17	5,443 ▼3	6,300 ▼4	2022년 2월 1,438 ▼63	3/28 ~ 4/3 280
4/4(월)	4,973 ▲20	5,446 ▲37	6,304		
4/1(금)	4,953 ▼12	5,409 ▼44	6,304 ▼538	2022년 1월 1,501 ▼83	3/20 ~ 3/27 280 ▲100
3/31(목)	4,965 ▲18	5,453 ▲49	6,842 ▲15		
3/30(수)	4,947 ▲42	5,404 ▼36	6,827		

※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홈페이지(사이트:http://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com)

생산 및 유통 관측정보

계란 유통정보

· 유통업계 동향

- A마트 : 전주대비 매출액은 53.2% 증가했다. 4월 2일부터 시작한 '랜더스데이' 행사를 진행함에 따른 매출 상승 등으로 행사기간 동안 꾸준한 판매 증가 예상

- C마트 : 전주대비 17.2% 상승했다. '의무휴업 주간의 1일 매출과 정상 주간의 1일 매출'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의무휴업 주간'의 1일의 매출 차이는 17% 전후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다.

- D마트 : 전주대비 매출액은 19.7% 증가했다. 의무휴업 주간이 없어 평소 매출 유지

· 계란시장 동향

- 3월 마지막 주와 4월의 첫주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이 돌아왔다.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 등으로 유통업체들은 매출 상승을 기대하며 주말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2022 랜더스데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한우 40% 할인을 진행하고 계란도 주말 이틀간 30개들이 알찬란을 5,480원에 판매했다.

대형할인점 및 소매업체들은 산지시세 상승에 따라 구매가격에는 반영 하여야 하나, 하락 가능성을 염두해 판매가격 인상은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산지의 계란 생산성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해 산지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으로 농장들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란율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형할인점 및 소매업체들은 **빠르면 금주부터 30개들이 판란 위주로 가격인상 할 것으로 보인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회원사들은 대한민국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정책 동향**

- 2022년도 가금이력제 이행실태 평가위원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2020년부터 '가금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본회를 비롯한 관련단체가 참석하여 '우수한 이력제 참여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계란이력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부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계란이 정부 포상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축평원은 매년 이력제 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축종을 대상으로 성적이 우수한 이력제 참여업체를 선발하여 장관상을 시상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현재 계란이력제사업의 참여와 확대를 위해서는 참여업체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등으로 고충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지원 등을 통해 참여 업체들이 편리하면서도 간단하게 이용하도록 관련업무를 최소화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본회가 제안하여 축평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더불어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서는 '식용란 거래 · 폐기내역서'의 작성 · 기록 · 보관 서류 등도 전산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여 달라는 본회의 요청과 민원이 접수됨에 평원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서류들을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란병아리 정보

- **<u>봄철(3~4월)이 시작되면서 산란병아리 입식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u>**

초생추 수요는 각 부화장별 생산능력에 대비하여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농장에서 봄철 부화되는 초생추 계군을 선호하는 영향이 있겠지만 노계군 교체의 목적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작년 한 해 동안 부족했던 '초생추 공급량'과'강보합을 유지한 난가'등으로 인해 생산기간이 연장된 노계군을 보내고 신계군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협조) 대영농원(주) 정한민 본부장

산란성계육 정보

- 2022년 3월 전국 산란성계 도축수수는 2,796천수로 집계되었다. 전월(3,648천수)대비 23.4% 감소하였으며, 전년(2,180천수)대비 28.3% 증가하였다.

질병에 의해 악화된 계란 생산성의 하락과 봄철 외출 증가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3월에 계란 부족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로인해, 고주령 계군의 연장 사육을 진행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산란성계의 도계장 출하물량이 줄어든 것이다.

<u>'4월 부활절 수요까지 겹쳐지면서 계란 부족현상은 당분간 지속'</u> 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4월 산란성계 전국 도축 예상수수는 2,200천수에서 2,500천수로 예상된다.

협조) ㈜신우에프에스 임용운 과장

4월 2주차 계란수급동향정보지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유통가격 동향

(2022. 4. 6 ~ 4. 12)

구분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비자가격	산란계병아리 월별 평균가격	산란성계육 주별 평균가격
	특란(원/30개)	특란(원/30개)	특란(원/30개)		
4/12(화)	5,013 ▼6	5,413	6,312	2022년 2월 1,438 ▼63	4/4 ~ 4/10 280
4/11(월)	5,019 ▲11	5,413 ▼63	6,312 ▲32		
4/8(금)	5,008 ▲16	5,476 ▼10	6,280 ▼20	2022년 1월 1,501 ▼83	3/28 ~ 4/3 280
4/7(목)	4,992 ▼7	5,486 ▲18	6,300		
4/6(수)	4,999 ▲9	5,468 ▲25	6,300		

※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홈페이지(사이트:http://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com)

생산 및 유통 관측정보

계란 유통정보

· 유통업계 동향

- A마트 : 전주대비 36% 하락했다. 4월로 접어들면서 외부 소비 증가 영향 등으로 보인다.

- B마트 : 전주대비 30% 하락했다. 지난 의무휴업 주간과 비교해보면 약 3% 정도 매출이 하락했다.

- C마트 : 전주대비 22% 하락했다. 통상 17~8% 전후로 의무휴업 주간과 정상 영업주간의 평균 매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비해 매출이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 D마트 : 전주대비 18.6% 하락했다. 할인행사 이후 전반적으로 2~3%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타 업체들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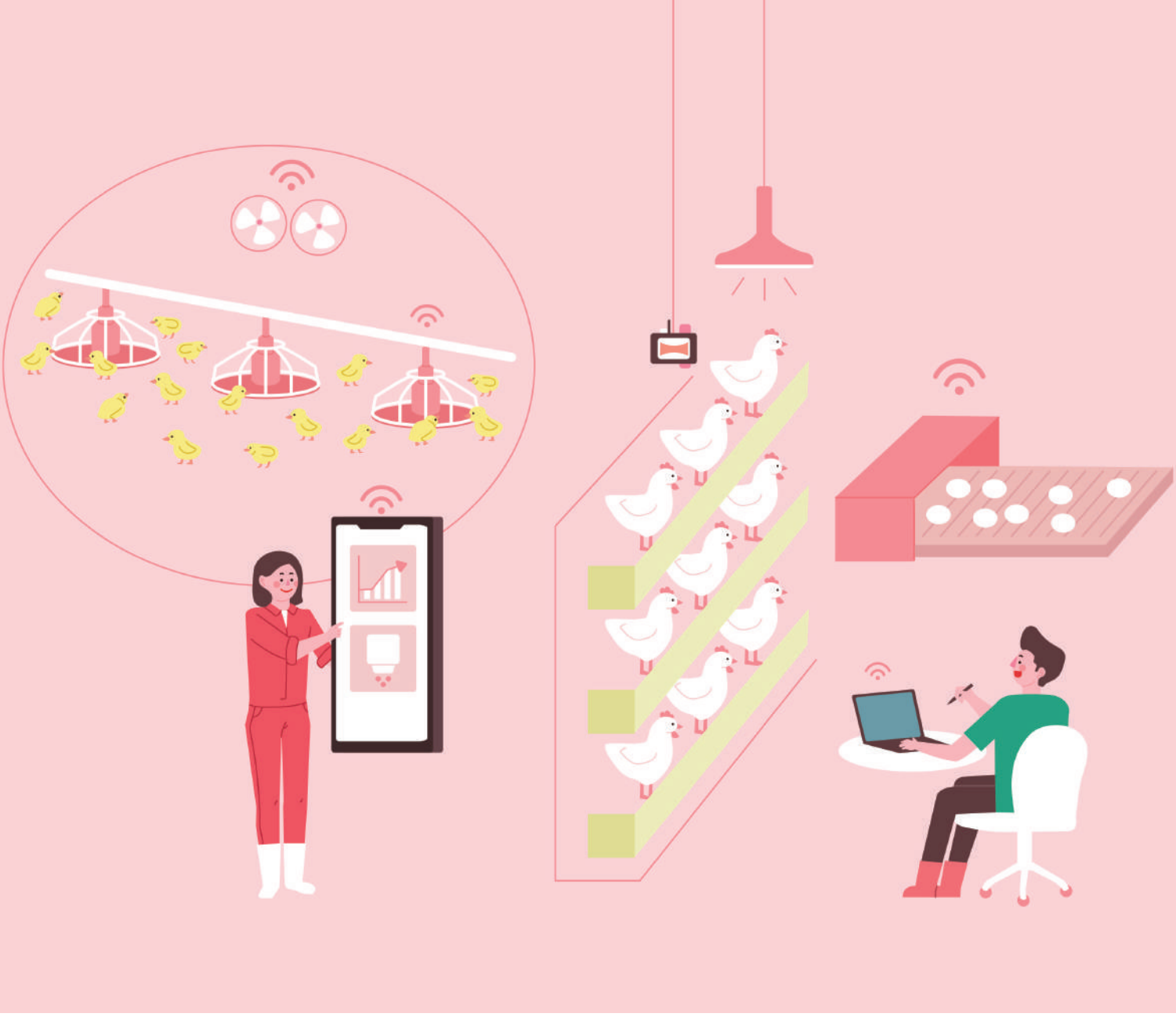
· 계란시장 동향

- 벚꽃이 만개한 첫 주말을 맞아 나들이객들로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았고, 할인점들은 한산한 매장 모습을 보이며 매출은 하락했다.

바깥 활동이 늘어나면 외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매점 매출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경제지를 비롯한 신문들 주요기사에서도 부쩍 야외활동이 늘어난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외식업 등의 매출이 대폭 늘어났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형 할인점 3사의 30개들이 판란 가격이 대부분 6,990원에 판매하고 있다. 공급업자들의 납품단가가 6천원대 초·중반임을 감안하면 거의 노마진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런 기형적인 가격구조를 만든 것은 농식품부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언에 따르면, 할인점들은 농식품부로 부터 가격인상을 자제할 것을 강하게 요청받고 있으며 이에 협조하는 업체에게는 "농활쿠폰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곡물가격 및 기타 원재료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작년대비 30%이상 치솟고, 계란의 산지가격도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할인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형적인 가격구조는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에게 불신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생산·유통단계별 정부 지원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정책 동향

- 계란공판장제도가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의 계란 가격결정 방식에 대해 전혀 신뢰를 하지 않고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정부는 의지만 보일뿐 적극적인 정책유도 등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으로 전혀 공판장을 이용할만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

계란공판장이든 아니든 가격결정구조를 바꾸는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사고발상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지금의 가격결정구조는 수십 년간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상호 노력 등에 의해 어렵



게 만들어진 결실물이다. 축산업의 진흥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추진만 하였던 농식품부가 이제와서 계란 가격에 개입하고 통제하려고 계란공판장을 이용한다는 업계의 볼멘소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새 정부가 희망을 안고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는 좀 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농식품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산란병아리 정보

- **<u>봄철(3~4월)이 시작되면서 산란병아리 입식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u>**

초생추 수요는 각 부화장별 생산능력에 대비하여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농장에서 봄철 부화되는 초생추 계군을 선호하는 영향이 있겠지만 노계군 교체의 목적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작년 한 해 동안 부족했던 '초생추 공급량'과 '강보합을 유지한 난가'등으로 인해 생산기간이 연장된 노계군을 보내고 신계군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협조) 대영농원(주) 정한민 본부장

산란성계육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u>지난 7일 경남 김해의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됐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별됐다고 8일 밝혔다.</u>** 이에 따라 경남의 다른 지역으로 AI가 전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농장은 산란계 13만 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인근 500m 가금농장 16만 7000수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반경 10㎞ 내 622농가 64만 6000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날 김해를 포함해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의 가금농장에서는 고병원성 AI 47건이 발생했다. 가금 종류별로는 산란계 15건, 육계 4건, 오리 23건, 종계 1건, 토종닭 2건, 메추리 2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12건, 전남 11건, 충북 10건, 전북 7건, 경기 3건, 세종 2건, 경남 2건이다.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는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 가금농장에서는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협조) ㈜신우에프에스 임용운 과장

4월 3주차 계란수급동향정보지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유통가격 동향

(2022. 3. 10 ~ 3. 15)

구분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비자가격	산란계병아리 월별 평균가격	산란성계육 주별 평균가격
	특란(원/30개)	특란(원/30개)	특란(원/30개)		
4/19(화)	5,068 ▼6	5,524 ▼7	7,019	2022년 2월 1,438 ▼63	4/11 ~ 4/17 298 ▲18
4/18(월)	5,074 ▼1	5,531 ▲53	7,019 ▲26		
4/15(금)	5,075 ▲13	5,478 ▼3	6,993 ▲663	2022년 1월 1,501 ▼83	4/4 ~ 4/10 280
4/14(목)	5,062 ▲21	5,481 ▲30	6,330 ▲16		
4/13(수)	5,041 ▲28	5,451 ▲38	6,314 ▲2		

※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홈페이지(사이트:http://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com)

생산 및 유통 관측정보

계란 유통정보

· 유통업계 동향

- A마트 : 전주대비 23.8% 매출이 상승했다.

- B마트 : 전주대비 22% 매출이 상승했다. 이번달 20일까지 농활쿠폰 10% 할인행사(판란 제외)를 진행한다.

- C마트 : 전주대비 37% 매출이 상승했다. 주춤했던 전 전주와 달리 매출이 살아나는 모습이다. 금주 21일(목) 부터 왕란 15입 제품의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 D마트 : 전주대비 22.1% 매출이 상승했다

· 계란시장 동향

- 할인점 판매가격 인상이 늦춰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식료품 유통업체들에게 농활쿠폰을 지원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매장들에서 농활쿠폰 10% 할인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농식품부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배추 · 무 등 산지에서 작물이 과잉생산 또는 가격폭락 시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해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가격을 낮춤으로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획되었다.

하지만, **계란은 그와는 정반대로 가격인상을 억제하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생산자 · 유통업자'는 계란 생산량은 줄고 소비량은 증가함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위축시키는 등으로 산지시세 인하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시장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나 **정부의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산지에서의 계란가격 인상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잘못된 개입은 **추후에 계란 과잉생산 등을 불러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 · 유통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될 뿐**으로, 정부는 당장이

라도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 정책 · 제도 동향

- 우리 협회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청으로 인해 식용란선별포장업자도 HACCP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이라는 문구를 포장지에 표기해야 한다.

협회 회원사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종사자들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재 법을 명확히 준수하면서 관련 제도 규정 등에 따라 계란을 선별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업체에서 본 제도가 아직까지 단속 등의 점검이 없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에 농식품부 · 식약처가 합동단속을 시행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우리는 눈앞의 개인적 이익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선의의 경쟁 등을 통해 우리 계란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선포업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 때문에 우리 선포업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은 절대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는 금번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마크〉 사용과 관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회원사" 로고를 제작하여 "우리 회원사에 한해서만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감과 만족감 등을 제공하여 회원사들의 이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계란생산의 품질향상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대한민국 언제 · 어디서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들의 신뢰의 약속을 나타내는 상징이 될 것이다.

산란병아리 정보

- **봄철(3~4월)이 시작되면서 산란병아리 입식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초생추 수요는 각 부화장별 생산능력에 대비하여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농장에서 봄철 부화되는 초생추 계군을 선호하는 영향이 있겠지만 노계군 교체의 목적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작년 한 해 동안 부족했던 '초생추 공급량'과 '강보합을 유지한 난가' 등으로 인해 생산기간이 연장된 노계군을 보내고 신계군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협조) 대영농원(주) 정한민 본부장

산란성계육 정보

- 질병에 의해 악화된 "계란 생산성의 하락과 봄철 외출증가" 등으로 소비가 확대되면서 계란부족 현상이 여전히 지속 되고 있다.

사실상 지난 18일(월)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소비가 일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나, 21년 10월 이후 분양된 병아리 수수가 많아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난가가 약세로 돌아서고, 배합사료 가격 인상의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5월 초순부터 계란 수급흐름 반전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연기 되었던 고주령 계군의 출하물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협조) ㈜신우에프에스 임용운 과장

4월 4주차 계란수급동향정보지

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유통가격 동향

(2022. 4. 20 ~ 4. 26)

구분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비자가격	산란계병아리 월별 평균가격	산란성계육 주별 평균가격
	특란(원/30개)	특란(원/30개)	특란(원/30개)		
4/26(화)	5,074 ▼32	5,616 ▼97	6,992 ▼16	2022년 2월 1,438 ▼63	4/18 ~ 4/24 298
4/25(월)	5,106 ▲27	5,713 ▲213	7,008 ▼5		
4/22(금)	5,079 ▼17	5,500 ▼3	7,010 ▲7	2022년 1월 1,501 ▼83	4/11 ~ 4/17 298 ▲18
4/21(목)	5,096 ▲5	5,503 ▲10	7,003 ▼11		
4/20(수)	5,091 ▲23	5,493 ▼31	7,014 ▼5		

※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홈페이지(사이트:http://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com)

생산 및 유통 관측정보

계란 유통정보

· 유통업계 동향

- A마트 : 전주대비 18.1% 매출이 감소했다.

- B마트 : 전주대비 20% 매출이 감소했다.

- C마트 : 전주대비 16% 매출이 감소했다. 의무휴업을 감안하면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 D마트 : 전주대비 16.7% 매출이 감소했다.

· 계란시장 동향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의 첫 주말을 맞이 하였다. 봄철 판매 실태조사 결과 대형할인점 및 소매점들의 경우 계란 매출이 다소 감소하는 한편 구운란 등 가공란의 매출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지난주 대형할인점들은 대부분이 할인행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금주는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따뜻한 날씨와 함께 바깥 활동이 많아지면서 장보기 보다는 외식을 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KREI(한국농촌경제원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5월 1일은 전년(6,481만수) 및 평년(6,851만수)에 대비하여 14.6%, 8.4% 증가한 7,425만수로 사육마리수를 예상하고 있다.

물가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소매업이 약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산지의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질병은 낮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되고 있어 정상 회복되면 공급과잉이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 정책 · 제도 동향

-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회원사 및 관련업계 등에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인증 마크」 표기를 홍보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계란 판매'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도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관리기준을 명확히 준수하면서 계란 최소 포장단위에 "위표"와 같이 〈HACCP 마크와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인증 문구〉를 같이 표기하면 된다.

협회는 식약처 허용에 따라 즉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도「식용란선별포장업자 HACCP 마크」 허용을 알리고 혹시나 모를 문제점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원에 관련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인증원에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 HACCP 인증을 받았더라도 ①수입된 계란을 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경우, ②동물복지・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아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 ③닭의 사육두수가 1만마리 이하인 영업자 등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덧붙여 안내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전만중 회장은 현재 협회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감과 만족감 등을 제공하고 회원사들의 이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계란생산의 품질향상 프로그램'도입 등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산란병아리 정보

- **<u>봄철(3~4월)이 시작되면서 산란병아리 입식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u>**

초생추 수요는 각 부화장별 생산능력에 대비하여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농장에서 봄철 부화되는 초생추 계군을 선호하는 영향이 있겠지만 노계군 교체의 목적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작년 한 해 동안 부족했던 '초생추 공급량'과 '강보합을 유지한 난가' 등으로 인해 생산기간이 연장된 노계군을 보내고 신계군으로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협조) 대영농원(주) 정한민 본부장

산란성계육 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로 봄철 외출 증가에 소비 확대가 예상되면서 계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인 생산성 저하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 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연장사육을 진행하는 농가도 발생되고 있으나, 사료값 인상・인건비 상승・저생산성 등으로 **<u>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있어 계획적인 산란성계육 도태 진행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u>**

협조) ㈜신우에프에스 임용운 과장

제일분석센타
식용란 자가품질검사

금액 & 시간

240,000원 (부가세 별도)

자가품질검사 336시간
참고용검사 240시간
(주말포함)

검사항목

항생제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설파제

잔류농약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식용란선별 포장업협회

담 당 : 제일분석센타 윤재광

연락처 : 010-8212-7712



